

## 교회소식

###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

- \* 일시 - 5월 10일(주일) 오후 4시 / 본교회
- \* 제70대 회장 취임 - 조상용 담임목사

### [모임]

1. 정기당회 - 오늘 3부예배후 / 당회실

### [알림]

1. 총회 주관 제3차 평화통일기도회 - 오늘 오후4시 / 본교회

### [교우 동정]

1. 소천 - 2교구 이영희 집사(한신희2)모친 / 25일(토)

### [담임목사 동정]

1. 대전CBS 실행이사회 - 27일(월) 오전11시 / 힐탑교회
2. 대전광역시장로연합회 CTS조찬기도회 설교 - 29일(수) 오전 7시 / 대전CTS
3.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 5월 1일(금) 오전 11시 / 본교회

###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김현철 집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철	오상옥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윤재룡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4. 26 (NO. 62-17)



###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 주일예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오후 4시  
총회평화통일기도회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 마라나타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배정만 장로(2부) / 홍순영 장로(3부)
성경	막 3:1-6

**예수님의 기적(15) :**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500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양: 드림찬양팀</li> <li>* 기도: 여성태 형제</li> <li>* 설교: 김종명 목사</li> <li>* 성경: 롬 14:1-12</li> <li>“그리스도인들의 비판”</li> </ul>	<p>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쉽니다</p>
--	-------------------------------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사사기 - 담당 교역자 -		- 코로나19 전염병 방지를 위해 쉽니다 -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안내위원	4 여 전 도 회	
	2 부	홍순영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이원명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박순병 집사	차량운행	2호/ 이봉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운 집사 010-6804-5574	
수요일예배	1 부	이명자a 집사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2 부	서정순b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오후 2: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 기도 게시판

##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7일)	최영희
화 (28일)	송정숙
수 (29일)	심윤중
목 (30일)	김종명 조정옥
금 (1일)	조상용 김혜경 임현성 오상옥 순정숙
토 (2일)	이은진b 이종욱
주일 (3일)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전용주 권연옥 이연옥 정영자 김명순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시~10시	본 당
금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주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 게시판

## 주간 성경읽기

날짜	26일(주일)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1일(금)	2일(토)
성경	대하13-15	대하16-18	대하19-21	대하22-24	대하25-29	대하30-32	대하33-35

### ♠ 환우

#### ☞ 1교구

\* 황종갑 집사(송촌1) - 신장암 / 웰니스병원

#### ☞ 3교구

\* 나승문집사(남3-1)모친, 남한순집사(판암)시모 - 노환 / 대청병원

# 모임안내

##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 5월 행사 안내

1일(금)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10일(주일)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11일(월)~12일(화) / 동대전제일노회 정기노회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7대 준칙을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지정된 자석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 (2) 1층 로비에서 체온측정과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중식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4.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6.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가족중에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후·노약자·영유아 경우,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 및 돕는 기관

### ♣ 파송선교사

- 김경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용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 후원교회 및 기관

- 세종중부교회 · 기독교임즈
- 가야곡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군선교연합회 · 내륙흥 노인회
- 주바라기선교회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신도 노인회
- 대전국동방송 · 더퍼리 노인회
- 대전CTS방송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 지난 주 말씀 요약

## 예수님의 기적(14) : 맹인을 단계별로 고치신 기적(막8:22~2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사35:5).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눈 먼 자를 고쳐주셨다. 오늘 벧새대에 사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은 독특한 점을 포함하고 있다. 맹인을 한 번에 즉시 고치시지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고치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육의 눈이 점차 보게 되는 단계가 있듯이, 영의 눈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인식이 세 단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1. 전혀 보지 못하는 단계

(22-23절) “벧새대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첫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한다. 한 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시53:1).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따라 마음대로 산다. 앞 못 보는 맹인은 이러한 죄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죄인에게도 예수님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맹인의 손을 잡고 구경꾼들을 피해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런 맹인은 스스로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의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다.

### 2.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

(23절下-24절) “...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다 하거늘” 두 번째 단계는 보기는 보아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시력이 흐려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을 포기하기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사람이 영적으로 흐린 눈을 가진 사람이다.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없으니,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에 안주하여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 3.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사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지막 단계는 온전한 지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상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신령한 사람은 앞서 나온 어린 아이와 반대되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다. 바로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또한 신령한 사람이 보는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영안으로 분명히 보았기에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희생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성령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분별의 영이시다.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일(금)	찬 273장	삿 17:7-13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p>레위 청년이 성읍에 살지 않고 유다 베들레헬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받지 못해 떠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7절). 결국 회막에서 여호와와 섬겨야 할 레위인이 미가의 피고용인으로 전락합니다.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전속 제사장으로 삼았고, 청년은 그 보수에 만족해 머물기로 결정합니다(10~11절). 설상가상으로 미가는 이제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됐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한 사람에게 고용돼 미가의 전속 제사장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운운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p>			
2일(토)	찬 280장	삿 18:1-10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단 지파
<p>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희박했고, 정복을 위해 희생을 치를 각오보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쉽게 주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청년은 길한 예언을 해주는데, 만약 그가 참된 제사장이었다면 전쟁을 치러서라도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라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흐릿해지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정탐꾼들과 레위인 청년의 대화는 이방의 점술사들 앞에서나 이뤄질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자가 그저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만, 이방 점술가처럼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점괘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p>			
3일(주일)	찬 278장	삿 18:11-20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p>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레위 제사장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기본적인 양심, 레위인의 자존심마저 팔아버립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과 거짓 예언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도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며 주술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물질적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릴 때 이런 거짓에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명확한 정체성으로 모든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p>			

#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강용주(김경희) 고윤설(박혜란) 고은율 공종호 곽영옥 구회선(박지숙) 김근홍(문정애)  
 김길주(박순자a) 김동원(김소연) 김수종 김순이 김순희b(이동주) 김연수 김영숙  
 김영천(남정혜) 김옥단 김정순c 남상천(김선희) 도소재 류순례(김병출)  
 류창선(배영미) 박노태(최영란a) 박미혜 박일용(조영희) 서숙자 송봉우 송순례  
 오복순 오상옥(김진남) 유창웅(김정식) 육종권 윤순금 이경호(송이순) 이명국(이용매)  
 이정아 이지연(이종훈) 이형두 임용식(우현주) 장지이 정영자 조규연(서정순b)  
 주경애 주정숙 편흥석(이진형) 한춘녀 황갑순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명옥 무명

## 감사헌금

고은결 김근홍(문정애) 김상복 김석순 김영천(남정혜) 김윤정 김정임  
 김종명(이은진b) 김현철 김혜자 김화순 안영세(한혜숙) 오상옥(김진남) 유은정  
 윤창수(김경순) 이여진 이영숙c 이형두 조상용(김혜경) 조성일 채기병(최영희)  
 최영란b(김영서) 최진수 무명4

## 선교헌금

강영미 강용주(김경희) 고윤설(박혜란) 곽영옥 구회선(박지숙) 김근홍(문정애) 김다빈  
 김동춘(유덕자) 김영애c 김영희b 김옥단 김인숙b 김형민(윤혜성,김정인)  
 남상천(김선희) 도소재 류순례 박노태(최영란) 박민지 박상규 박일용(조영희) 박종보  
 박희인 서숙자 성성식(권금자) 송봉우 송순례 송주현 신현상(김혜영)  
 안철호(이영숙a) 양승순(이인성) 양영준(서영순) 유덕자 육종권 윤순금(박미자)  
 윤인애 윤지우 이경호(송이순) 이명국(이용매) 이서진 이수진 이예진 이정아 이창익  
 이형두 이효진 장지이 전옥순 정영자 주정숙 최영애 한춘녀 황갑순 황경숙  
 6여전도회

## 부활감사헌금

박일용(조영희) 강순애 곽영옥 구회선(박지숙) 김인숙 박원진a 박일용(조영희)  
 유화자 윤창수(김경순) 이여진 이재숙 정구훈 주정숙 한순옥(광배) 한춘녀 황갑순  
 꽃꽂이헌금 심윤중(모현옥,최민영)

## 장학헌금 윤재룡 전용주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7일(월) 찬 528장 샛 16:1-14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리낌 없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있던 기생집에 드나들 뿐 아니라 괴력을 과시하며 블레셋의 위협을 비웃습니다. 이런 삼손의 행동은 전혀 거룩하거나 모범적이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의 모습입니다. 분명 삼손은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나실인이라는 것과 범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자만에 빠집니다. 삼손은 분명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묻는 이유에 대해서 눈치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힘이 자신을 지켜 주리라 믿으며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충분히 내가 책임질 수 있어”라고 자만하며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실패와 멸망뿐입니다. 내게는 이런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28일(화) 찬 254장 샛 16:15-22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마음대로 어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실인이 부정을 범했을 경우에는 일곱째 날에 그 머리카락을 밀고 제사를 드리며, 지난 기간은 무효가 되기에 다시 나실인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민6:9,12). 삼손은 이미 나실인 규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들릴라의 손으로 삼손에게 규례대로 강제집행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는 것 대신 그의 머리 일곱 타래가 밀렸습니다. 이로써 그의 나실인 기간이 끝났음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권능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던 삼손은 결국 강제로 율법의 규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그의 성별됨으로 인해 그와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 이제 삼손은 뼈아프게 후회하며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9일(수) 찬 298장 샛 16:23-31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 한 명을 체포했을 뿐인데도, 블레셋의 잔치는 마치 승전 축하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블레셋에 대항하는 군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사사답게 최후를 맞이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비록 눈이 뿔히고 옥에서 땀물을 돌리는 처지가 됐지만, 그는 거기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단절돼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이자 사사로 부름 받은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블레셋에게 일격을 가했고, 이전의 모든 싸움을 더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곤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삼손. 그러나 그의 마지막 믿음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30일(목) 찬 521장 샛 17:1-6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사사 시대의 영적 혼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범죄, 저주를 두려워하는 주술, 아들을 바로잡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은을 되찾았음을 기뻐하는 모습은 답답할 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면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미가는 그 은 신상을 결국 자신의 집에 두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뻘뻘함까지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비윤리적 모습과 배금주의로 물든 혼돈의 시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 참된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언제라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교묘하게 혼합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정말 성경적입니까? 내 소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돌아봅시다.